A-3 임플란트 식립시 3차원 CT의 부가적 활용증례

모기영, 이민구, 김정혜, 손성희
삼성의료원 치과 진료부 치주과

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계획시 매식 부위에 대한 정확한 사전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X-ray는 골의 질 및 양, 치조제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임플란트의 길이, 위치, 방향을 결정한다. 치조제 상태가 양호한 경우 standard panorama만으로도 치료계획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tomogram이나 CT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본 증례는 기존의 CT이외에도 3차원 CT상을 치료계획에 부가적으로 활용하여 수술시에 도움을 얻고자 한 경우이다.

증례 1

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한 55세 여자로 #36, 37의 동요도와 periodontal breakdown을 보였다. #36, 37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.

증례 2

상하악 다수 치아의 동요도와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45세의 여자환자로 하악의 경우 #31, 32, 41, 42, 43, 44, 45, 47 치아들을 발치하고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.